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신문협회, 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 대응 방안 모색

생성형AI 대응 협의체, 공정위 신고 후속 조치 논의

신문협회 '생성형AI 대응 협의체'는 지난 1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뉴스 무단 학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언론사와 AI 기술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4년 2월 1일 출범했으며,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회의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 담당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난 2025년 4월 24일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 후 공정위 신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신문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0일 공정

위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신고 보충자료를 협회에 요청해 오며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

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문협회 정기총회

3월 20일 개최

신문협회는 오는 3월 2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6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이어 이사, 감사 등 새 임원도 선출한다.

2026년 한국신문상 공모에 45건 접수

뉴스취재보도 12건, 기획·탐사보도 33건
4월 7일 신문의 날 기념대회서 시상

2026 한국신문상 응모 건수

구분	재경사	지역사	계
뉴스취재보도	6건	6건	12건
기획·탐사보도	16건	17건	33건
계	22건	23건	45건

신문협회가 2026년 한국신문상 후보작(지난해 1~12월 신문보도)을 공모한 결과 총 45건이 접수됐다. 부문별 접수 현황은 △뉴스취재보도 부문은 11개 회원사에서 12건, △기획·탐사보도 부문은 26개 회원사에서 33건이다(표).

심사위원은 △변재운 전 국민일보 발행인 △이태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장 △이하원 관훈클럽 총무 △조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다. 최종 수상작은 3월 11일 심사위원들의 개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최대 2건(뉴스취재보도 부문 재경회원사 1건·지역회원사 1건, 기획·탐사보도 부문 재경회원사 1건·지역회원사 1건)이다. 시상식은 4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부문별로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뉴스취재보도 부문: 12건 (재경 6건, 지역 6건)			
신문사	내용		
경향신문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최초 보도		
매일경제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제	韓-웨스팅하우스 원전 지식재산권 불평등 협정 연속 단독 보도		
연합뉴스	기다리던 집으로		
조선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세계 첫 인터뷰		
한겨레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EDCF 사업 뒤집혔다		
강원도민일보	6.25 75주년 특집 살아남은 자의 외침		
경인일보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광주일보	'장애인의 날' 되짚어본 현실 - 멀고도 험한 '학교 가는 길'		
부산일보①	사천 우주항공청인데... 주요 기능·행사는 다른 도시에?		
부산일보②	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 - 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살인'		
영남일보	경북 안동지역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단독 보도		
기획·탐사보도 부문: 33건 (재경 16건, 지역 17건)			
경향신문	남태평양을 넘어	경기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진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뉴스1	노화역전의 꿈	광주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동아일보①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경인일보①	일제 법정에 맞선 독립운동가
동아일보②	헌트: 치매머니 사냥	경인일보②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매일경제	보이스피싱 20년 잔혹사	광주일보	물길 끊긴 여도, 생태계도 끊겼다
문화일보	베이비붐 1세대 '인생 2막' 리포트	국제신문	낙동강하구 0.9°C의 경고
세계일보①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매일신문①	남야보니 행복이다
세계일보②	당신이 잠든 사이	매일신문②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아시아경제①	건설위기 보고서	매일신문③	[송고한 나눔, 기적 같은 선물] 시리즈
아시아경제②	교육 대전환 시리즈 - <한국의 교육, 길을 잃다> <대학 대전환>	매일신문④	대구고립보고서
아시아경제③	은폐-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	부산일보	풍요 속의 빈곤: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
중앙일보①	실록 윤석열 시대	울산매일	From you x 인터뷰 Season 2 - 독자가 선택하고 완성하는 새로운 지역 내러티브
중앙일보②	2025 자영업 리포트	강원도민일보	
		경북매일	
한겨레	영월나이트-의료취약지 공공병원 메디컬 드라마	울산매일	소외지역에 소문난 '소소한 만능 배달꾼'
한국경제	사라진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해부하다	인천일보	From you x 인터뷰 Season 2 - 독자가 선택하고 완성하는 새로운 지역 내러티브
한국일보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전북도민일보	걸어서역사속으로-왕의길을 걷다
강원도민일보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북일보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떴다>
		중부매일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출연금 의혹 검증

신문협회 신문발전연구소 회의 개최

협회 산하 신문발전연구소(소장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3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문협회 2026년 조사연구 아이템 △70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

징벌적 손해배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응 △AI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신문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신문발전연구소 회의에서 연구위원들이 신문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재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배정근(전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홍성철(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위원.

재경회원사 설 연휴 4~5일간 휴간

신문협회 재경 25개 회원사는 올해 설 연휴기간 4~5일간 휴간한다.

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 등 8개사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휴간한다. 경향신문·내일신문·대한경제·머니투데이·문화일보·브릿지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스포츠조선·아시아경제·아주경제·이데일리·전자신문·코리아타임스·주경제·이데일리·전자신문·코리

2월 15~18일	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
2월 14~18일	경향신문·내일신문·대한경제·머니투데이·문화일보·브릿지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스포츠조선·스포츠조선·아시아경제·아주경제·이데일리·전자신문·코리아타임스·한겨레신문·헤럴드경제

아타임스·한겨레신문·헤럴드경제 등 17개사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다.

올해 언론재단 공모사업에 245억 5,200만 원 편성

뉴스콘텐츠 제작·취재역량 강화·디지털 혁신 등 19개 부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은 지난 1월 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공모 사업별 지원 규모와 일정 등을 소개했다.

언론재단은 올해 ▶고품질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취재 역량 강화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뉴스 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민간업계 동반성장 등 5개 부문 19개 사업에 총 245억 5,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규모는 총 48억 7,500만 원으로, 신문·인터넷신문·잡지에 13억 8,500만 원, 방송에 34억 9,00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취재 역량 강화’는 △해외 장기연수 지원 △KPF 디플로마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지원 △국제 언론교류 지원 △대학언론사 우수보도상 공모전 등 5개 부문에 총 13억 7,1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외 장기연수 예산은 지난해 8억 6,400만 원에서 올해 4억 2,500만 원으로 축소됐으며, 국내외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지원하는 KPF 디플로마 사업에는 4억 1,500만 원이 편성됐다.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분야에는 총 49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신문 1부를 지원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은 16억 8,900만 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문사를 9월 모집한 후, 2027년 1월~12월 1년 간 신문 구독을 지원한다. ‘신문 우송비 지원’은 4억 원이 책정됐다.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뉴스 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은 117억 4,3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에는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개발,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누리집(www.kp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	사업명	예산	지원내용
고품질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기획취재지원 (신문·인터넷신문·잡지)	13억 8,500만 원	-최대 5천만 원 이내 (대학언론은 건별 500만 원 이내)
	기획취재지원(방송)	34억 9,000만 원	-[단편 연속보도] 건당 3천만 원 이내 -[장편 보도] 건당 7천만 원 이내 -[시사·교양] 건당 1억 원 이내
취재 역량 강화	해외 장기연수 지원	4억 2,500만 원	-학비 1천만 원 이내 실비 -항공료 250만 원 이내 실비 -체재비 월 250만 원 (12개월)
	KPF 디플로마	4억 1,500만 원	-왕복항공료, 현지체재비 등 지원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지원	1억 9,700만 원	-강의료 및 장소임차료 지원
	국제 언론교류 지원	3억 1,900만 원	-왕복항공료, 현지체재비 등 지원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및 로니교실	18억 1,400만 원	-미디어강사 파견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7억 원	-미디어강사 파견
	미디어 리터러시 아카데미 운영	1억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교사연수 및 교구재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6억 8,900만 원	-1년간 신문구독료의 80% 제공 -취약계층 대상 신문 1부 구독 지원
뉴스 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 지원	25억 6,000만 원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활용 지원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개발 지원	8억 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서비스 개발 지원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5억 9,000만 원	-과거 기사 디지털화 지원
	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77억 9,300만 원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자료 디지털 보존 및 방송장비 개선 지원
민간업계 동반성장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4억 5,000만 원	-1인당 3천만 원 내외
	언론단체 지원	6억 9,000만 원	-(세미나) 1천만 원 (출판) 2천만 원 (행사) 5천만 원
	광고학회·단체 지원	5억 원	-광고 관련 단체 및 학회의 공익적 광고 사업(세미나·출판·행사) 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74개사 선정

사업예산은 118억...작년 대비 35억 증액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지난 9일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에 74개 신문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일간신문은 협회 회원사 18개사를 포함해 29개사, 지역주간신문은

45개사다. 올해 우선 지원대상 공모에는 총 100개사(지역일간신문 41개사, 지역주간신문 59개사)가 지원했다.

지발위는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 비중 50% 이하 △지역신

문 운영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필수요건으로 지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필수요건에서 기존의 ‘한국ABC협회 가입 여부’를 삭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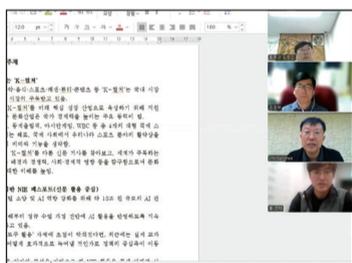
우선지원대상 지역일간신문(29개사)

※파란색은 신문협회 회원사(18개사·가나다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매일,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광주매스컴), 광주일보, 기호일보, 남도일보, 동양일보(동양미디어),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매일(덕천),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신문협회 2026 NIE 패스포트 ‘신문으로 만나는 ‘K-컬처’

초·중·고 학생에 7,000부 배포



신문협회는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NIE 패스포트 편집회의(사진)를 열고 ‘신문으로 만나는 ‘K-컬처(가칭)’를 올해 패스포트 주제로 확정했다. NIE 패스포트는 초·중·고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과제를 해결하는 워크북이다.

집필진(표)은 “‘K-컬처’는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적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신문보도를 기반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신드롬 배경과 경쟁력,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탐구함으로써 문화와 전통의 가치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패스포트 총 7,000부(초 3,000부, 중·고 각 2,000부)를 제작해 오는 5월 말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한다.

2026년 NIE 패스포트 집필진

구분	일정
초등	이유진 정목초등학교 교사
	강병길 경기초등학교 교사
	최상희 경향신문 편집국 부장
중등	홍근태 인화대사범대부속중학교 교사
	이윤희 인천신흥여중학교 교사 김정연 前 한겨레 매거진 편집기자
고등	권영부 前 동북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영민 명덕고등학교 교감 박형수 중앙일보 편집국 부장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는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권동형 기조협의회 회장(한국일보 전무이사·사진)을 재선임했다.

기조협의회 정기총회 권동형 회장 재선임

부회장에는 △채원배 뉴스1 편집인·전무이사 △진상현 머니투데이 미디어전략본부장·상무 △김재욱 서울신문 경영본부장·상

무 △정현기 전자신문 고객센터국장 △서상범 헤럴드경제 기획조정실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미디어실장이, 감사에

는 정유정 충청투데이 기획조정실장 상무가 뽑혔다. 기조협회는 이날 △생성형 AI 대응 △언론중재법 개정 대응 등을 해 주요 사업도 의결했다. 신문협회 산하 협의회의 2026년 정기총회 일정은 오른쪽(표)와 같다.

2026년 협의회 정기총회 일정

구분	일정
경영지원협의회	4월 17일(금)~18일(토)
광고협의회	5월 8일(금)~9일(토)
기술협의회	3월 5일(목)
디지털협의회	3월 18일(수)
마케팅협의회	3월 6일(금)~7일(토)
출판협의회	6월 19일(금)~20일(토)

일본신문협회, “생성형AI 학습 데이터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일본신문협회(NSK)는 지난 1월 26일 일본 정부의 ‘생성형AI의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및 투명성 규칙안’에 대해 실효성 강화와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규칙안은 생성형AI 개발자와 생성형AI 서비스 제공자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표)을 담고 있다.

일본신문협회는 “해당 규칙안은 법정 규칙이 아니며 강제적인 공개나 벌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형AI)사업자가 준수하지는 불투명하다”며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생성형AI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제화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규칙안이 생성형AI 기업에게 AI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 공개 대상을 ‘데이터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는데 대해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된 데이터 세트를 관리자 측이 특정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AI 검색에서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답변 작성에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검색 증강 생성(RAG)에 이용되는

정부에 ‘생성형AI의 투명성 규칙안’ 개선 촉구

투명성 확보 방안	①사용자 모델 공개(명칭, 이력, 사양, 학습 프로세스 내용 등) ②학습 데이터에 관련된 사항 공개(데이터 종류, 웹크롤링 여부 등) ③책임성 강화(책임자 명시, 의사결정 추적 가능 여부 등)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 수립,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등
권리자(저작권자) 측의 정보공개 요구	소송·조정·ADR※ 등을 준비 중인 자가 특정 URL 등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는지 여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는 답변해야 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대신 협상·조정·중재 등 제3자 개입을 통해 분쟁을 신속·저비용으로 해결하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지식데이터’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저작권이 침해된 권리가 AI사업자 등에 정보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규정안은 저작권자가 ‘특정 URL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정한다. 신문협회는 “(URL을 바꾸거나 여러 링크를 돌려가며 접근을 유도하는)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 약해졌고, AI사업자가 입수한 데이터에서 URL을 삭제할 경우 (정보공개 요구의)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URL뿐만 아니라, 권리가 지정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요구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에 정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의 케르스틴 하세 청소년 독자 사업책임자는 지난 1월 19일 ‘젊은 독자 확보를 위한 4가지 전략’을 소개했다. 하세에 따르면, 젊은 독자들은 주로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및 개별 크리에이터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 텍스트 기반의 기사만으로는 젊은 독자를 사로잡기에 역부족이며, 젊은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상 플랫폼에 최적화된 포맷과 시각화가 필요하다. 언론사가 젊은 독자층과 소통할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젊은 층과 교류 확대

단순히 언론사 홈페이지로 독자를 유입시키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언론사는 단순 기사 공유를 넘어 소셜 미디어 특성에 최적화된 ‘세로형 영상’과 시각적 ‘설명형 콘텐츠(Explainer)’를 필수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신

INMA, 젊은 독자 유지·확보 위한 4가지 전략

소셜 미디어 내 ‘세로형 영상’, ‘커뮤니티’ 중심의 관계 형성

규 채널을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정기 구독료와 멤버십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방식의 직접 결제 모델’, 즉 개별 창작자와 독자가 직접 연결돼 후원하거나 필요한 콘텐츠만 날개로 구매하는 방식 등 유연한 수익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콘텐츠를 넘어 ‘관계’에 투자

젊은 독자들은 뉴스 소비 행위 자체보다 해당 채널과의 유대감과 관계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INMA 회장 게르트 이세바르트(Gert Ysebaert)는 최근 “중요한 것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택은 탐사 보도나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외형적 요소보다 ‘신뢰’와 ‘참여’에 기반한 독자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비

롯된다. 기자들이 독자의 댓글에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고, 독자가 콘텐츠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플랫폼 재방문율(Retention)’을 높여야 한다. 언론사들은 미래 독자인 젊은 층의 호흡에 맞춘 새로운 기사 포맷을 실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뉴스 브랜드보다 ‘개별 목소리’ 강조

전통적 매체 브랜드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는 반면, 뉴스 소비자들은 명확한 개성을 지닌 ‘개별 인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선호한다. 이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신뢰 형성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저널리즘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배타적 시각

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젊은 독자들은 연결성(Connection), 진정성(Authenticity), 신뢰(Trust)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들과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을 능가하기도 한다. 외부 크리에이터와 협업할 때는 언론사 문법에 맞춰 그들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협업의 성과는 크리에이터 고유의 직업성과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달려 있다.

고착화된 뉴스룸 문화 혁신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어떠한 혁신 전략도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젊은 독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언론사

조직 내부의 경직된 문화를 점검하고 유연하게 재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소셜 플랫폼과 뉴미디어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취급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젊은 기자들의 동력을 꺾고 독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 뉴스룸 내 다양한 연령대의 기자와 구성원들이 개인의 가치관·비전·장점 등을 브랜드화하는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시·공간적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넘어, 기자들의 퍼스널 브랜드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 매체 전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뉴스룸 다각화 전략이기도 하다.

내부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은 미디어 브랜드에 젊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구성원들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시장에 전달될 때, 비로소 플랫폼 전반에서 독보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30세대, 무조건적인 뉴스 회피 아닌 원하는 기사 ‘선별’

우연히 접하고, 관심 있으면 찾아보고, 신뢰하면 구독 ‘정기 이용’과 ‘선택적 회피’ 병행하는 뉴스 소비 방식

영국 언론전문매체 저널리즘(journalism.co.uk)은 지난 1월 29일 FT 스트래티지와 노스웨스턴대학교 메릴 저널리즘 스쿨이 발표한 ‘차세대 뉴스: 2030 오디언스 이해하기(Next Gen News: Understand the audience of 2030)’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5개 국가(미국, 영국, 브

라질, 인도, 나이지리아)에서 젊은 세대가 뉴스를 이용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젊은 이용자들은 뉴스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뉴스의 정기적인 이용과 선택적 회피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과잉과 뉴스 큐레이션

젊은 세대는 콘텐츠의 방대한 양과

파편화로 인해 피로도를 느끼고 있으며, 번아웃을 피하고 뉴스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뉴스 피드, 알림 등을 스스로 선별하는 개인화된 뉴스소비 습관을 갖게 된다.

브랜드보다 투명성·개인적 연결 더 신뢰

젊은 세대는 투명성, 진정성, 그리고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신뢰의 주요한 요소로 여겼다. 이용자들은 뉴스 제작 과정의 투명성

을 가치 있게 여기며, 종종 기존 언론사보다 개별 기자나 창작자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플랫폼 네이티브 기반의 뉴스 소비

젊은 세대가 뉴스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들은 뉴스 웹사이트 방문이나 방송 시청보다는 주로 소셜미디어 피드를 통해 뉴스를 접했다. 또한 25세 미만은 뉴스 이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이다.

뉴스 이용 통로로 소셜 미디어·메신저 앱·영상 플랫폼이 필수적인 요소가 됐으며, 알고리즘과 친구 공유에 따라 노출되는 뉴스가 결정된다.

뉴스는 개인화에 초점

차세대 뉴스 이용자에게 뉴스는 정치나 시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시민적 가치, 개인적 가치, 또는 오락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이 뉴스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부패·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론지로 남을 것”

세계일보 창간 37주년 기념식

세계일보(발행인 이기식)는 지난 2일 본사에서 창간 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기식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1989년 ‘언론은 진리의 대변인이자 사

회의 양심’이라는 신념으로 출범한 세계일보는 애천·애인·애국의 사시 아래 자유언론이자 책임언론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가 넘쳐나는 복잡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진실과 양심을 기준으로 부패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론지로 남을 것”을 강조했다.

전라일보, 주 4일제 시범 시행...금요일은 특집판 발행

전라일보(발행인 유현식)는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했다. 전라일보는 현행대로 월~금요일 주 닷새간 신문을 발행하되 금요일 신문은 기획 기사와 그간 지면의 한계로 다뤄지지 못했던 이슈, 여행지, 맛집, 역사현

장 탐방 등을 담아 특집판으로 제작한다.

전라일보는 “지난해부터 주 4일제를 준비해 왔고 올해 안에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기자들의 생산성과 워라벨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회원사 동정

강원일보, ‘강원의 역사展-철원의 어제와 오늘’

강원일보(발행인 박진오)는 오는 27일까지 철원문화관 전시실에서 ‘강원의 역사展-철원의 어제와 오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철원 지역의 변천사와도 민들이 살아온 삶을 담은 강원일보 사진과 철원군의 과거 사진 등 80여점을 선보인다. 또 지난 80년간의 강원일보 특종 보도와 신문 변천사, 1945~1980년대 실렸던 광고 등의 자료도 공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국(055-751-1085).

경인일보, ‘제34회 경인히트상품’

경인일보(발행인 홍정표)는 오는 26일까지 ‘제34회 경인히트상품’을 공모한다. 응모 대상은 소비자나 고객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거나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상품·서비스 및 공공기관 정책이다. 공모 결과는 3월 13일 경인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3월 19일 열린다. 접수는 경인일보 홈페이지(www.kyeongin.com)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해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031-231-5259.

(목)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문의는 경향신문 문화사업국(02-3701-1607).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4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발행인 김여송)는 오는 25일까지 ‘리더스 아카데미 제14기’ 원우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계 등 각 분야의 유력인사 및 전문가이며 모집 인원은 제한이 없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이며 수강료는 550만 원(VAT 포함)이다. 문의는 광주일보 편집국(062-220-0623).

부산일보, ‘제46회 전국서도민전’

부산일보(발행인 손영신)는 한국서도예술협회와 공동으로 3월 16일~17일 ‘제46회 전국서도민전’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한글부 △한문부 △문인화부 △전각부 △소자부 △서각부 △캘리그래피이며 출품료는 1점당 5만 원, 2점 이상부터 각 4만 원이다. 시상내역은 △대상 1명 △우수상 2명 △특별상이며 상금은 각각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다. 문의는 한국서도예술협회 홈페이지(www.ksdy.co.kr) 또는 051-441-7081.

기획부(02-724-8776).

중앙일보, 제17회 ‘홍진기 창조인상’

중앙일보(발행인 박장희)는 오는 28일까지 재단법인 중앙화동재단과 공동으로 제17회 ‘홍진기 창조인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이 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고(故) 유민(維民)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됐다. 시상 분야는 △과학기술 △사회 △문화예술이며, 모집 대상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혁신에 기여한 인사나 단체이다. 분야별 수상자는 메달과 상패, 상금 1억 원을 받는다.

경남일보, ‘진주남강 마라톤대회’

경남일보(발행인 고영진)는 공군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6 진주남강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5일부터 선착순으로 3,000명 모집한다. 마라톤은 4월 5일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 남강 일원에서 출발하며 종목은 △하프코스 △10km 코스 △5km 건강 달리기다. 참가비는 부문별로 4만 원, 3만 5,000원, 2만 원이며 접수는 홈페이지(www.gnmarathon.co.kr)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경남일보 마라톤 사무

경향신문, ‘제75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경향신문(발행인 김석중)은 오는 26일까지 ‘제75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중·고등부 참가 부문은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이며 고등·대학·일반부 참가 부문은 △성악이다. 참가비는 초등부 18만 원, 중·고등부 20만 원, 대학·일반부 21만 원이다. 예·본선은 3월 25일(수)~4월 16일

매일경제, ‘제2기 자산관리·가업승계 과정’ 수강생 모집

매일경제(발행인 장승준)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3월 16일까지 ‘제2기 자산관리·가업승계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자산관리의 핵심 의제를 실무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교육은 3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매일경제 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340만 원(VAT 포함)이다. 접수는 홈페이지(amp.mk.co.kr)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02-2000-5433.

서울경제, ‘2026 대한민국 베스트 뱅커 대상’

서울경제(발행인 손동영)는 오는 20일까지 ‘2026 대한민국 베스트 뱅커 대상’을 공모한다. 베스트 뱅커 대상은 한 해 동안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금융인들의 업적과 노고를 기리는 상이다. 응모 부문은 △은행 부문 △비은행 부문 △금융공기업 부문 등이다. 시상식은 4월 1일 소공로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이메일(mys384@sedaily.com)로 가능하다. 문의는 서울경제신문 마케팅국

신문협회보

발행인	임채정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이 문구는 서약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갱신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세요.

임의 사용 NO!

서약사만의 권리를 지키는 기회입니다.

❓ 왜 갱신했나요?

- ✔ 일부 비서약사의 무단 사용,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 ✔ 서약사의 권리보호 및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 ✔ 책임 있는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